

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한다

13곳 시설 점검·운영 실태 조사 5개소에 현대화·안전 환경 제공 운영자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 지역특산물 연계 프로그램 개발

곡성군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2주간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3곳에 직접 방문, 시설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마을 운영자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매출액, 체험객 수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홍보 실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전남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에서 사무장 대다수가 지원을 받기도 했다. 마을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발굴해 외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어낸

결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이에 군은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에서 진행되며 체험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 운영자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고객 응대, 안전 관리, 마케팅 전략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운영자들의 관리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마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수 마을 벤치마킹도 추진한다. 타 지역의 성공적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 방문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통해 마을 운영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운영 장성군, 4월 2일까지 모집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4월2일까지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31일 장성군에 따르면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귀농에 필요한 지식과 영농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오는16일 개강해 월 2회씩 총 10회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귀농기초 소양교육, 작목별 재배 체험, 선도농가 방문 등 과정으로 구성된다.

수강 신청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이나 귀농귀촌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농업기초를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귀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병현 기자



배 재배 농가 찾아 현장 소통 나주시, 과수화상병 방제 당부

나주시가 본격적인 배 영농을 앞두고 과수원 현장을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분주한 시기에 농치기 쉬운 과수화상병 방제를 당부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세지면, 금전면 소재 배 과원에서 전남도 농업기술원 박용철 기술지원국장과 함께 영농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방문한 농가에서는 과수원 운영과 관련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일소피해와 병해충 발생 빈도 증가, 작업 인력 부족 등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과수화상병 자체 방제 요령 등을 안내했다.

나주시는 올해 농촌인력증개센터에 3억6000만원을 투입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 농가형 계절근로자 600명을 운영 중이다.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에 불법 소지가 없고 이탈 가능성이 적은 뿐 아니라 인건비 또한 사설 중개업소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영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영농철 외부인 출입이 잦은 과원은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에 시는 작업자들의 농장 출입 시 작업 도구, 작업복 소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에 발생하는 병으로 빠른 전염력을 가지고 있으나 발병 후엔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이다.

시는 올해 5억3000만원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약제 3종을 2168농가(1658ha)에 지원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과수 질병 예방과 인력난 해소 등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난달 28일 화순군청 직원들이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80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제80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화순군은 지난달 28일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내(보검재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북규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화순군 의회, 화순 소방서 직원, 임업인, 지역 주민 등 450여명이 참여했으며 춘양면 대신리 임야 1.5ha에 매화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산불 예방 및 소각 금지 캠페인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및 일반인에게 자두, 앵두, 단감나무 등 반려 식물(묘목) 나눠주기 행사(450그루)도 함께 진행됐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기후 위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숲

이자,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화순군은 전체 면적의 73%가 산림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애써 심고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남광주농협,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4200만원 전달

대학생 자녀 등 42명 대상

남광주농협은 31일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 자녀 42명에게 총 4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조합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 농업·농촌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남광주농협은 1996년부터 매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702명에게 14억9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영종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해 지역사회를 이끄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원 사업으로



31일 남광주농협은 조합원들의 대학생 자녀 42명에게 총 4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광주농협 제공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수질오염총량 맞춤형 기술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 목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월부터 광주시와 전남도, 경남 하동군 등 관할 18개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영산강 수질은 하천 수질 등급 지표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최근 11년 중 가장 개선됐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자체는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다양한 수질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저감목표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88.7%, 총인 73.2%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기술지원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1:1로 지원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기술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2030년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깨끗한 영산강과 섬진강을 만드는 데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